

# 세계 인권 선언 60주년 교토 어필

1948년 12월 10일, 제 3회 국제 연합 총회에서 제 2차 세계 대전과 같은 비참한 전쟁을 교훈으로 삼아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에는 「인류 사회 전 구성원이 지닌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을 「빼앗을 수 없는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와 더불어 남녀평등에 관한 신념을 재확인하고, 더 큰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 향상을 촉진한다」라는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제1조의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로 시작해 제30조의 「권리와 자유를 해치는 활동을 용인하지 않는다」라는 조문에는 긴 세월을 걸친 인류의 자유, 정의, 평화를 향한 소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세계 인권 선언」의 채택된 해로부터 6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그 동안 「세계 인권 선언」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제 인권 규약」을 비롯한 많은 인권 조약들이 제정되었고, 1994년 제 49회 국제 연합 총회에서는 「인권 교육을 위한 국제 연합 10주년」이 결의되어 그에 관한 「행동 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기본적 인권 보장을 명기한 「일본국헌법」하에, 다양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책의 추진과 여러 관계 단체에 의한 활동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저희는 2003년 11월 30일 「세계 인권 선언 55주년 교토 어필」을 내외에 공표하였고, 이후 교토부에서는 「신 교토부 인권 교육, 계발 추진 계획」을, 교토시에서는 「교토시 인권 문화 추진 계획」을 각각 책정하여, 교토부와 교토시의 추진 간담회에 의한 시책의 점검과 평가를 행하면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인권 교육, 계발 추진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법무성 인권 옹호 기관인 교토부 인권 옹호 위원 연합회 및 교토 지방 법무국에서는 같이 60주년을 맞이하는 인권 옹호 위원 제도를 기초로 하여, 지역에 기반을 둔 면밀한 인권 옹호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기관들이 연계하고 협력하여 인권 계발과 상담 및 구제의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시책의 구체화와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부단한 노력에 의하여 인권 상황은 개선되어 왔지만, 분쟁 격화와 자연 파괴, 기아와 빈곤, 생명의 존엄성을 빼앗는 인권 침해 등과 같은 평화와 인권을 위협하는 사태가 더욱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생명이 빛을 발하는 인권의 세기로 만들기 위하여, 새로운 인권 문화 창조를 목표로 「세계 인권 선언」의 정신과 그 의의를 재확인하고, 가족, 학교, 직장, 지역에 뿌리를 둔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평화스러운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합시다.

2008년 11월 8일

교토부지사

교토시장

교토지방법무국장

재단법인 세계인권문제연구센터이사장

야마다 케이지

가토가와 다이사크

와가이 신이찌

우에다 마사아키

60th